



협회 전산 시스템 개선

협회는 과학기술처 위탁업무인 방사선작업중사자 피폭기록관리업무와 회원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그리고 민원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에 걸친 전산프로그램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보완될 예정이며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보완될 주요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업무성격별로 구분하면 「방사선작업중사자 피폭기록관리업무」, 「회원관리업무」, 「RI등이용기관관리업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피폭기록관리업무」는 과학기술처의 위탁업무로서 방사선작업중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업무이다. 지난 「RI NEWS」 6월호 첫장에서 설명된바 있는 피폭방사선량기록에 대한 분류 및 전산검증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록보존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기록관리업무의 다양화·고기능화 필요성에 맞춰 다년간 업무수행에서 습득된 경험을 토대로 개선하게 됐다. 특기할 사항은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제도반영이 검토되고 있는 실효선량, 3mm(수정체)선량, 0.07mm(피부)선량으로 피폭방사선량을 세분화 관리하는 것과 ICRP60의 권고에 따른 5년간 집적선량 평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방사선방호 체계의 선진화를 꾀하며 향후 반영될 국내 방호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량한도 초과 피폭, 피폭방사선량 측정불능, 선량계 분실 등을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점을 둔 부분은 “선량한도 초과 피폭 우려자에 대한 사전통보체계”이다. 이것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선량한도를 넘기 전에 일정한 선량에 이르게 되면 미리 주의 통보를 하는 장

치를 말하는 것으로 과피폭 발생을 저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시로 피폭방사선량 현황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는 「회원관리업무」에 관한 것으로 최근 지속적인 방사선이용기관 증가로 회원사 및 개인 회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업무도 복잡, 다양화 되어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노력중 하나로써 정확한 회원현황 파악과 충분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례로 각종세미나 및 교육훈련 안내, 회보발송, 협회발간 출판물배포, 구인/구직 알선등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그 밖에도 회원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산기능을 구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I등이용기관관리업무」는 국내 방사선이용 기관에 대한 현황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 기록의 일부분이 문서로서 관리되어 현황 파악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RI 등 이용기관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므로써 국내 방사선이용 흐름과 향후 전망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업종별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현황과 지역적 분포, 용도에 따른 현황등 실용적인 통계가 가능하게 되므로써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전산프로그램 개선 계획은 협회업무의 효율성 증대로서 뿐만아니라 회원 및 유관기관의 기대에 부응하며 크게는 우리나라 방사선안전관리업무에 일조코자 하는 것으로 회원 및 관계기관의 기대와 관심을 바라마지 않는다.

〈정보관리팀장 전승엽〉